

숫양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숫 양이다. 그리스도와 언약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우리는 누구나 깊은 기도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 정복하고 항상 승리하고 걱정없이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질러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응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된 귀중한 영적 비밀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영적 서밋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영적 서밋은 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기능서밋이라고 한다. 이 현실에 나타난 증거는 영역이 넓어져서 결국 문화서밋에 도달하게 된다. 모세는 주위에 있는 강대국에 비하면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 그 증거는 훨씬 많았다. 그 당대를 통틀어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었다. 우리도 다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란다. 이런 영적 서밋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단을 쌓는 것이다.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언약을 잡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에 줄을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언약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목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다. 그래서 사명을 언약으로 잡고 영적 전쟁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신다. 사단이 절대 방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문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성경대로 역전을 시켜주실 것이다. 사단은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주신 천명이 있고 그것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힘도 받고 답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사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이기에 그 안에는 권세가 있다. 이 하나님의 이유를 언약으로 잡은 사람에게는 권세가 나타난다. 이 사명의 권세를 누리는 한 주권이 되기 바란다.

1. 숫 양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이다. 그 주제가 숫 양이다.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 있다. 창세기 25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여섯명 더 낳았다.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다. 적어도 50년 이상 더 살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22장에서 끝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다. 아직 그가 살아 있어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더 할 이야기가 살아 있더라도 더 없다는 것이다.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숫양으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끝냈다. 성경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이 땅에 왜 불렀나? 그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요셉을 왜 불렀나? 그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모세를 왜 부르고, 사도바울을 왜 불렀나? 그 인생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숫양이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얼마나 대단한가? 이삭이 뻔히 알면서 순종했다.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나 주제는 숫양이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언약은 그리스도이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3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했다. 이 정도 믿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굉장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숫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11절에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를 질러서 막은 것이다. 그 진짜 죽이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기에 하늘에서 급하게 부른 것이다.

히 11: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다. 정말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아들을 낳았다. 이 때 아브라함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것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아들을 죽여도 살릴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였다. 8절에 보면 이삭이 번제드릴 번제물이 어디있는가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거라고 말하였다. 이삭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짜 이렇게 믿었다고 해도 아니라고 할수 없다. 아마 백살에 아들을 얻은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준비할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왜냐면 백살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였다. 그래서 거침없이 행동에 옮겼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다. 만일 도망을 가면 뭍기 전에, 나무위에 올라서 칼을 찌르려고 했으므로 그 전에 도망가면 절대 아브라함이 못 따라왔을 것이다. 이삭은 10대고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으므로 절대 따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뭍을 때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뭍어서 번제단에 올렸을 때 이미 이삭은 뭐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진짜로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 참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원한 언약, 숫양이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 일어난 이야기인 것이다.

숫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삭을 대신해 죽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의 저주를 당신이 지고,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것이다. 여기에 만일 답이 나면 즉시로 자유할수 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수 있다. 진정으로 답다면 즉시로 정복해버린다. 인생의 모든 것, 미래, 과거, 다 포함하여 그 자리에서 다 끝났다. 정복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이다. 사단은 이 믿음을 계속 방해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양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저주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누구를 대신하여 죽은다고 소리를 지르고 죽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대신 죽으심의 효과는 오직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 숫양은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도록 지명한 제물이다. 이 사건을 두고 이삭은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일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기억되어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죽을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 옆에 숫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 거기에 있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아마 이삭은 이 장면을 절대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신 죽은 숫양으로 이삭은 답이 났다. 이삭이 다른데 답안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답이 난 것이다. 그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삭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6장 한 장 분이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10장이다. 야곱에 대한 기록도 10장이나 된다. 그런데 이삭은 한 장으로 끝났다. 왜냐면 사건이 없다. 그리스도로 답 나 버렸기에 사건이 없는 것이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계속 쫓겨가면서도 우물은 전부 이삭 것이었고 파면 우물이 나왔다. 결국 그 지역의 샘의 근원을 얻었다. 한해 농사 짓는데 100배가 나왔다. 그래서 마침내 대단한 거부가 되었다.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 주위의 왕과 군대장관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했다. 서로 전쟁하지 말자는 것이다. 전쟁하면 질 것같아서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너를 위해 숫양을 준비하고 있다. 여호와이레이다. 내가 준비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므로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너를 대신하여 죽을자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절대 안 죽는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숫양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너는 절대 잊지 말라. 그리고 이 사실을 두려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미 죽으시고 완성해냈다. 그러므로 너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즉시 행하고 이삭처럼 흔들리지 말라.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숫양을 준비했으니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이 사실을 믿고 너도 내 말씀을 믿고 즉시 행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다. 믿으면 답 날 줄 믿는다. 깊이 이 사실이 두려지면 승리하고 정복할 것이다. 그리스도 누리고 237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 대적의 성문

사단의 성문이다.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사명이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은 숫양이다. 그 숫양 안에 하나님

의 약속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같고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다. 그것이 구원, 저주에서 해방, 운명에서 해방, 뱀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똑같은 약속이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반석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 약속해줬다. 천국의 열쇠, 보좌와 직통하는 것이다. 이 열쇠가 곧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숫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한 이 본문에서도 거기에 후속되는 약속을 써냈다. 그것이 바로 17-18절이다.

창 22:17-18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수로 표현이 된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영적인 축복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언약으로 잡으면 영적인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편안해지고 승리하는 것이다.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들어온다.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어도 그렇게 된다. 이 영적인 힘은 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육신적 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응답이 나타나고 환경이 바뀌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것으로 되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24시가 되면 누구든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귀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인 작업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는 일들이 눈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불신자가 보기에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부족한 누림의 행위가 하나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 가야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부족하지만 이것을 지속하면 그리스도 누림을 깊게 주시고 결국 대적의 성문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단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안 속으면 더 좋지만 속아도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은 십자가이고 주님의 능력이다. 이런 증거가 우리 인생중에 충만하게 하는 출발이 바로 오늘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하면 주위에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 개인의 영적치유, 가정, 인생, 전도치유 다 일어난다. 당연히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렘넌트 운동 일어나는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 이유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것을 믿었지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냥 믿기만 했다. 왜냐면 하나님니까.. 과거의 증거, 흥해도 같랐기 때문에. 광야를 살면서 우리는 만나를 먹었다. 밥을 먹었다. 광야에서. 이건 보통일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 간다고 하니가 나는 간다 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이다. 만나는 그때만 내려오고 지금은 안 내려온다. 그런데 어떻게 갈나? 만나를 하루밖에 안 내렸어도 그 전능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다. 지금은 먹을게 많아서 안 내려오지만 그 때 40년간 모래 땅위에 만나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때 하루만 했어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남은 증거이다. 우리는 미국 남미 다민족이 기도제목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믿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믿는 것이

다. 안 믿으면 쓸데없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흥해를 가른 것이 사실이면 그만한 기적은 지금도 하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237, 치유, 서밋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절대적인 권세가 있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불신자도 하나님께 계속 대들면 죽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반드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누리고 내 인생은 세계복음화에 줄 서야 한다.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부모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공부해라. 운동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답이 없을 것이다. 그 때 즉시로 세계복음화라고 나와야 제대로 된 부모이다. 그것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부모이다. 왜 좋은 학교를 가야 하나? 왜 내 자신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은 지혜가 있는 부모이다. 그리고 그 부모의 아이들은 아주 귀한 부모를 만났으므로 아주 행복한 것이다. 만일 부모가 이런 부모가 아니면 그 자녀들은 고생하게 된다. 부모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렘넌트가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이나, 재산이나, 육신적인 일에 생각이 굳어져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인생 교과서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반드시 내가 역사할 것이고 너는 성공하고 정복할 것이다. 부모가 성경에 어긋나면 렘넌트가 계속 잔소리해서 바꿔줘야 한다. 엄마 아빠가 틀렸다고 늘 말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뒤집어야 한다. 이것이 렘넌트의 사명이다. 이런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산업이나 직업이나 학업, 다 마찬가지이다. 237과 맞아야 한다. 그래서 237을 향하여 사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근본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 방향은 237 이렇면 안 망한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아직도 살아 있는데 성경에서 그의 이야기를 끝냈다. 적어도 50년 이상 더 살았다. 살아 있어도 소용없어 끝났다. 그 정도로 단호하다. 야곱이 창 35장에 보면 평생 단 한번 쌓은 인간이 아니다. 34절에 보면 딸이 밖에 나가 강간을 당했다. 큰일 났다. 그 때 하나님이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했다. 압복강에서 한 대 맞을때도 정신 못 차렸다. 그 때도 옆길로 가서 안 올라왔다. 그래서 딸에게 사건이 났다. 야곱은 약한 사람이었다. 큰일 난 것이다. 그 날 저녁에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했다. 그날 자기의 장신구 다 묻고 옷도 갈아 입고 베델로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거기서 끝냈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오래 살았다. 애굽에 가서도 좀 살다가 죽었다. 그래도 나는 야곱을 통해 너희에게 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는 것이다. 너도 단을 쌓아라. 이렇게. 그러면 너의 인생 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중에 가장 흔한 것이 문제이다. 너 진짜로 아브라함처럼 숫양 깨닫고 야곱처럼 단 쌓으러 올라가면 나 너에게 문제 안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겠나? 만일 문제가 오면 역전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이 단을 쌓으라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더 할 이야기 없어. 단, 숫양. 그것으로 영적으로 니 인생 끝내고 237위해 살아라. 그러면 끝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나? 갈등 오는 것이다. 왜 이리 안되는가, 기도를 하는데 왜 안되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죽을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 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 한다. 언약의 피, 숫양, 단,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다른거 할 필요 없다. 이것만 하면 다른 거 다 주겠다는 것이다. (마 6:33) 대부분의 신자가 이렇게 안 산다. 이런건 틀린 것이다. 빨리 바뀌어야 한다. 이해가 안되면 이해 먼저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은 숫양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를 지은 것은 나인데, 죽어야 할 인간은 아담인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을 죽인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구원이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 숫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있다. 이 권세로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237인생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누리며 이렇게 살면 승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같은 믿음이 있기 바란다. 그리고 이삭과 같은 믿음이 있기 바란다. 그러면 인생이 아브라함, 이삭처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숫양을 언약으로 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